

# 캐나다의 大學敎育과 토론토大學校

高興善

(忠北大 生物學科)

## 1. 머리말

한 나라의 敎育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방식은 그 나라의 社會制度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社會 제도가 歷史的 產物이라면 한 나라의 歷史를 포함하는 전반적 사항에 대한 記述이 特定國家의 敎育에 관한 언급에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敎育이 아직도 시행 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理由는 (敎育학자 및 敎育 전문가들께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조 시대의 유학에 기초한 敎育, 일본 제국주의 압제 시기 하의 일본식 敎育,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의 미국식 敎育, 그리고 1960년 후의 해외 유학파에 의해서 도입된 유럽식 敎育 등이 혼합된 상태하에서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歷史 및 지리 등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고, 캐나다의 大學敎育 및 敎育 전반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한 후에 토론토 大學校에 관한 것을 논하고자 한다. 그 다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敎育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제안함으로써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이며, 남쪽

으로는 미국, 북쪽으로는 북극 및 그린랜드와 접하고 있다. 광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나라는 영국 연방에 속하지만, 자치적인 민주 국가이며 10개의 주(province)와 두 개의 準洲(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이천 오백 만의 3분의 2 정도가 미국과의 경계 지역인 남쪽 지방에 살고 있으며, 22개 도시 지역에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두 개의 큰 도시, 즉 퀘벡주의 몬트리올시와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시에 육백 만에 달하는 인구가 생활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북부 지역은 각종 광석, 석유, 천연 가스, 목재 및 水資源의 천연 보고(natural treasures)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업 도시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단풍잎(maple leaf)으로 상징되는 거대하면서도 풍요로운 땅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1608년 프랑스의 Samuel de Champlain 경이 퀘벡주에 식민지를 세움으로써 프랑스령 식민지로 출발한 캐나다는 1768년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1774년 퀘벡 헌장에 의해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敎育과 종교 등에 독자적인 위치 및 자격을 견지하게 되었다. 결국 영어와 불어의 2개 국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 독립 전쟁 후 전쟁에 패배한 영국



◀ 토론토대학교  
동물학과 강의동

에 충성하는 충성파들의 캐나다로의 대대적인 이민이 있었으며,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공산 국가가 된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도 빈번하였으므로 전 세계 민족이 한 나라에 공존하는 세계 민족의 축소판이 되었다(인구의 45%는 영국계, 즉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및 아일랜드인들이며, 30%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로부터의 자손들이고, 약 4분의 1 정도는 미국인을 비롯한 유럽인, 아시아인 및 아프리카인들이며, 1% 정도의 원주민 인디안과 0.1%의 에스키모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다국적 문화의 발전(multicultural development)을 고무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 상태(multicultural mosaics)가 바로 미국과 다른 캐나다의 독특한 점이며, 이러한 불균일한 상태(heterogeneity)하에서 공동의식과 일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단일한 국가로 변형하는 길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2. 캐나다의 大學教育

캐나다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대학교육에 관한 소개는 이어서 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의 결정을,

캐나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10개 주 정부의 개별적이고도 독립된 책임 아래 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2개 준주에서의 교육과 원주민인 인디안과 에스키모인에 대한 교육 및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를 위한 교육만을 맡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10개 주정부와 2개 준주정부의 교육 정책을 모두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교육은 영국 및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유럽식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경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온타리오주에서는 미국의 영향이 강하고,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이 강하며 나머지 주에서는 영국의 영향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이 각 주의 책임하에 실시되므로 각 주는 독특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사회가 민주적 정신에 입각한 사회이므로 교육 목표의 공통점은 쉽게 찾게 된다. 즉 자아 실현, 개인의 안전 및 개인의 행복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理想으로 하고 있는 캐나다 사회

의 기본적 특징은 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각 주의 교육 목표는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에 의존한다는 정신하에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육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pre-school 교육, elementary 교육, secondary 교육 및 post-secondary 교육이 이루어진다. 9월부터 6월에 이르는 2학기 동안에 10일의 크리스마스 휴가와 일주일의 부활절 휴가를 빼고 180일 내지 200일의 수업이 있으나, 대학에서는 9월초에서부터 4월말이나 5월초까지만 수업이 진행된다.

Secondary 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다. 주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post-secondary 교육은 학생들의 재정 조달이 약 20%에 달한다. 또한 secondary 교육까지는 주내 및 주간 학교간에 전학 등이 자유롭지만, 각 주의 특징적인 교육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약 80%의 캐나다 어린이들은 5세 때에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또한 6세부터 16세까지(grade 1에서 grade 10) elementary 학교에 다닌다. Secondary 교육은 grade 9에서 grade 11 정도나 grade 10에서 grade 12 정도가 해당된다.

Post-secondary 교육은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대학교와 학위는 주지 않고 수료증을 줄 수 있는 학교로 나뉘어지게 된다. 우선 community 대학이란 대학교가 아닌 post-secondary 교육 기관의 별칭이며, 알버타주 등에서는 정규 대학교의 2년간의 교육 과정을 가르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편입할 수 있다. 이외에 기술 학교나 직업 학교가 있으며 1970년대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설립된 이 학교들은 grade 8에서 grade 12 정도의 수업을 받은 학생이면 입학할 수가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grade 11에서 grade 13까지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적성 검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대학교는 1980년에 벌써 68개교가 존재하였다. 연 4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을

하고, 15,000명 이상의 재학생 수를 가진 대학교도 토론토대학교, 브리티쉬 콜롬비아대학교, 알버타대학교, 몬트리올대학교 및 맥길대학교 등 5개교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영어로 강의를 하지만, 일부는 프랑스어로만 강의를 하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여 강의를 하는 대학교도 있다.

학사 자격을 얻으려면 3년 또는 4년(학과목은 15 또는 20)간을 공부하여야 한다. 석사학위는 같은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또는 2년의 수업 후에 취득하게 되며,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최소 3년간의 과정을 밟게 되고, 종합 시험이나 학위 논문의 통과 후에 학위가 수여된다.

대학교육은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온타리오, 퀘벡주 등 4개 주가 캐나다 연방을 형성했던 1867년에는 이미 17개의 대학교가 있었다. 이는 그 당시의 인구가 3백 50만 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높은 비율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당시의 대학은 종교계의 영향 아래에서 설립되었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생긴 Laval 대학교의 모체는 1635년에 설립된 Jesuit 대학이다).

서부에 있는 브리티쉬 콜롬비아를 비롯한 4개 주가 연방에 합쳐졌던 1906년에야 비로소 주 정부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주립대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 연방 정부가 대학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점차적으로 지원 내지는 간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그 전까지는 토론토대학교와 맥길대학교를 제외하면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대학교는 없었으며,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도였다. 연방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고도의 연구진과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이를 대학교에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교는 직업 훈련 및 최신 과학 연구의 중추 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결국 캐나다의 대학교는 유럽식의 전통과 미국의 개방된 사회적 현실과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었으며, 종교적인 영향 아래에서의 설립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청에도 부응

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이다.

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기구는 전통적으로 양원제도(two-tier system)이다. 즉 총장의 임명 및 재정적인 면을 해결해야 하는 이사회(board)와 모든 학교 업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평위원회(senate)로 구성된다. 평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하부 기구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학 자격의 결정, 교과 과목의 설정 및 학위 수여의 결정 등은 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이사회의 동의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두 기구가 서로 양립하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한다. 이러한 체제는 1970년대초부터 단원 기구(unicameral system)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토론토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의 구성은 학부가 중심이 되며 학부내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 예를 들면 입학 자격, 학사 일정 및 교과과정 등의 결정은 학부의 독립적인 결정 사항이다. 전통적인 유럽식 대학교는 4개 학부, 즉 신학·법학·의학 및 문학부로 구성되나, 프랑스로 강의하는 대학교에서는 철학 및 사회과학부가 추가된다.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교에서는 문리학부(faculty of arts and sciences)가 중요 학부가 되며, 인문·사회 및 이학에 관한 강의를 이루어진다. 규모가 큰 대학교는 이외에도 농학·상경·치학·교육학·공학·음악부가 존재한다. 개별적인 학부는 많은 과(department)로 나뉘며, 학과의 자치적인 면도 존중되므로 미국식에 가까운 학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대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불충분한 재정 상태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였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학부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경비,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그리고 도서관 및 실험 실습을 위한 경비 등이 막대하게 필요했지만 제 때에 조달할 수가 없었다.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필요나 보조하에서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졌을 때 소외된 학부 교육이 문제가 되었으며, 등록금의 인상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 차등 징수의 방법 등이 실

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 및 연방 정부의 보조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간섭의 정도가 커지게 되었으며, 결국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캐나다의 대학교가 국제적 수준으로의 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토론토大學校

토론토대학교는 남쪽이 5대호와 접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수도인 인구 이천 칠백 만의 토론토 시 시내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8개 대학(유니버시티, 빅토리아, 트리니티, 성 미카엘, 스카보로우, 에린달레, 뉴우 및 이니스태학)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교 안에 작은 규모의 대학들이 존재하므로 해서 각 대학내의 학생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친밀한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 동시에 모든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의 다양하고 풍부한 여건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는 토론토대학의 강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면이나 학위 수여의 면 등에서 3개 대학(빅토리아, 성 이카엘 및 트리니티)은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녹스, 워리퍼 및 엠마뉴엘대학 등도 신학부가 있는 토론토대학교와 연계된 대학이지만, 자치의 정도가 더욱 강해서 교과과정조차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학생 수는 full-time 학생이 3만여 명이며, 약 10%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이들 학생들은 8개 대학에 각각 등록을 하게 되며, 수업은 대학교를 이루고 있는 15개의 학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응용과학·공학·건축학·물리학·치학·교육학·식품과학·임학·법학·도서관학·경영학·의학·음악·간호학·약학 및 사회사업학부). 그러나 영국계 대학인 관계로 중추적인 학부는 문리학부이며, 8개 대학 모두에 문리학부가 존재한다.

토론토대학교의 발전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1827~1849년인데 King's 대학의 설립 시기이며 종교적인 성격으로부터 이탈하는 시기이다. 두번째는 1850~1889

년인데 종교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시기이다. 세번째는 1889~1905년인데 연합대학교의 시기이다. 끝으로 네번째는 1905년부터 현재까지인데 대학의 확장 및 발전 시기이다. 1827년 King's 대학은 upper 캐나다주의 주립대학교로 영국 교회의 영향 아래에서 설립되었다. 1836년에 빅토리아대학이 개교하였고, 1849년에 King's 대학은 영국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토론토대학교로 校名이 변경되었다. 영국 교회는 1851년에 트리니티대학교를 설립하였고, 1852년에 성 미카엘대학, 1853년에는 유니버시티대학이 개교하였다. 1890년에는 빅토리아 및 성 미카엘대학 토론토대학교로 연합이 되었으며, 1904년에는 트리니티대학도 합쳐졌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토론토대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게 되었던 1890년에서부터 토론토대학교는 이사회와 평위원회의 양원 기구가 존재했다. 이사회는 총장뿐만 아니라 주 정부 관리들을 포함하는 32인의 이사로 구성되고, 재원의 조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평위원은 학장 및 교수들을 포함하는 19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대학 업무에 관한 공식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1972년에 일원 체제, 즉 governing council이 양쪽의 역할을 전부 수행하는 제도로 변경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한 해에 약 2억 불이며, 70%는 주 정부에서 10%는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머지는 각종 기부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포함할 정도로의 각종 장학금이 있으나, 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인 학생으로 제한된다. 5년 또는 10년 후에 갚게 되는 정부로부터의 대여 장학금은 대부분의 캐나다인 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자국 학생에게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자국 학생의 등록금의 세 배를 내야 되며, 장학금 혜택의 제한 및 부업의 금지 조치 등이 있으므로 캐나다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충분한 경비가 있어야만 수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post-doctoral 연구비 등을 얻는 기회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한받으

므로 미국의 개방적인 면과는 달리 상당히 보수적 내지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자국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및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명량한 대학교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내에는 민원 사무관(ombudsman)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학업에 관한 것이나 졸업 후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는 상담원 제도도 존재한다. 학점에 관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각 과목당 5불씩을 내고 열람 및 재검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수 및 행정 직원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5불을 되찾게 되지만, 잘못이 없었을 때에는 5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과제의 제출이나 논문의 작성에 필수적인 도서관의 시설은 삼백 팔십만 권의 책, 삼만의 정기간행물, 팔십만의 마이크로필름 교재 및 사십만여 점의 각종 자료가 중앙도서관 및 각 과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1973년에 Roberts 연구도서관이 14층의 건물로 완성되어서 오백만 권의 책을 보관할 수가 있고, 약 4분의 1 평크기의 작은 방들이 많이 있어서 원하는 학생은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된다. 토마스휘셔 rare book 도서관은 진귀한 도서들만을 보관하므로 해서 그 진가를 더하고 있다.

시설면에 있어서는 컴퓨터 센터의 효율성도 특기할 만하다. IBM S/370-165나 IBM7094 II 등의 컴퓨터는 각 과의 전산실까지 주변 기기로 연결되었으며, 필자가 공부하던 '70년대 후반기에는 무료로 전부 개방되었다. 사용 시간도 아침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점검을 위한 시간만을 빼고는 완전 가동하는 실정이라서 밤을 새우면서 새벽까지 전산실에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보다 밀도 있는 수업을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도 특기할 만한 사항일 것이다. 즉 토론토대학교의 교수이면서 동시에 Royal 온타리오 박물관의 20개 과의 curator 및 연구원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Royal 온타리오 박물관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며, 고

고학·자연과학 및 예술 박물관 등이 있으며 20개 과에서는 특별 전시회·강연 및 서적 출판 등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흥미를 끌고 있다).

#### 4. 맺는 말

대학의 사명에 대한 입장은 상아탑 속에서 오직 진리의 탐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면과 다른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며 대중화 내지는 속세화되어야 한다는 면의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이 있다. 이제는 uni-versity가 아니라 multi-versity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가 있다. 또한 타국의 교육에 관한 제도 등을 비교함으로써 자국의 교육 정책의 수립과 계획의 확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교교육학이라는 학문의 응용적인 면에의 강조도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입장과 달리 교육학자나 교육 전문가가 아닌 동물 계통분류학을 전공하면서 약 5년간에 걸쳐 캐나다에 체류했던 사람으로, 그 당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한 가지만 제안함으로써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의 교육 목표는 타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의 기본이라는 근본적인 입장에서 세워져 있다. 따라서 캐나다 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표출되게 된다. 토론토대학교의 생활을 회상해볼 때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모든 대학 사무실에는 작은 종이 놓여 있으며, 사무원이 없을 때는 종을 치도록 되어 있다. 종이 울릴 때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사무원은 하던 일을 즉시 덮어두고 필자의 요청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대학 도서관에서도 책 한 권이나 논문 한 편이라도 더 찾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필자를 도와 주었던 기억이 난다. 교수의 적극적이고도 열성적인 수업과 지도도 기억이 난다. 즉 대학의 교수나 직원들은 대학 졸업생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기들의 업무가 학생들의 발전을 도와주는 일임을 명백히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에 귀국하여 교수로서 한국의 대학에서 경험한 바는 캐나다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교육헌장에도 분명히 개인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의 근본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지만 그것이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 일반 사무실의 직원들은 하던 일이 끝나야만 학생의 요구를 해결해주었으며 심지어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책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책을 어느 정도 본 후에야 그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논문을 읽고 연구해 보려는 필자의 요청을 타 대학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전문 사서직도 아닌 일반 행정 직원이 과장으로 있으면서 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이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인을 포함한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의 기본임을 실감하지 못하고, 대학 졸업생을 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교수나 행정 직원들의 업무이며 동시에 사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교육이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니라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자를 포함하는 모든 교수 및 행정 직원들의 봉사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며, 이러한 자세로 재무장을 했을 때에 보다 나은 대학과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